

#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 진정한 로맨스는 없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러브 주식회사

로리 에시그 지음, 강유주 옮김



코로나와 빈부격차, 경제난으로 고달픈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취업문제로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노인들은 노후 빈곤과 건강문제로 불안하다. 기성세대는 자녀 교육과 주거, 부모 봉양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이처럼 모든 세대가 저마다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때에 로맨스는 힘겨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생존전략이 되기도 한다. 마치 파란 하늘을 마치고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맥주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랑을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는 이가 있다. 미들버리 칼리지의 젠더, 성, 페미니스트학 교수인 로리 에시그가 바로 주인공이다. 자본주의시대 사랑은 오염됐다고 단언하는 그는 로맨티스트이자 냉소주의자이다.

최근에 펴낸 책 '러브 주식회사'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21세기 로맨스다. 오늘의 사랑은 자본주의와의 결혼으로 '러브 주식회사'로 변했다는 게 기본 논조다. '자본주의로 포장된 로맨스라는 환상'이라는 부제가 말해주

듯 책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오늘의 로맨스를 비판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느끼며 첫 키스를 한다고 해도 환경 파괴와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는 비판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사랑이 전부 아니지만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때 역할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지난 2016-2017년 캘리포니아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북핵문제로 세계가 불안했지만 미국인 8000만명은 홀마크 채널에서 방영된 영화 33편을 시청했다. 비뉴스 채널에서, 그것도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것이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는 '해피엔딩'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랑이 행복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근대사상과 함께 싹텄다. 로맨스는 근대사회를 이해하는 방편이자 "소비에 의미를 불어넣는" 기제인 셈이다. 어떤 사랑이 좋고 나쁘지, 누가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명시한다는 점에서 로맨스는 '하나

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그렇게 이데올로기화된 로맨스는 "완전한 시민권과 국가가 주는 추가 권리와 특권뿐 아니라 해피엔딩의 자격이 특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강제한다. 일테면 백인 남성이 갑옷을 입은 기사로, 백인 여성은 위기에 빠진 여주인공과 같은 설정이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한발 더 나아가 로맨스는 '계급과 인종, 젠더, 성에 관한 생각 외에도 다이아몬드 반지, 고가 주얼리 심지어 선거 후보자까지 파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듯 로맨스는 다양한 소비 자본주의와 연결돼 개인의 행복까지 좌지우지한다.

문제는 로맨스가 부리는 마법에 돈이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공동의 문제를 외면케 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 재화를 '개인화된 해피엔딩'을 위해 쓰도록 만든다. 일명 '러브 주식회사'가 그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저자는 로맨스가 희망을 주지만 그 희망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식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한다. 로맨스 이데올로기 안에서 개인의 미래로 초점이 향하는 한 공동체의 해피엔딩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로맨스 마법을 원하게 강제하는 모순이 오늘날 많은 갈등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해피엔딩에 대한 미련마저 버려야 할까. 다음은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다.

"로맨스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로맨틱한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은, 증오와 탐욕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할 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산소와도 같다."

<문학사상·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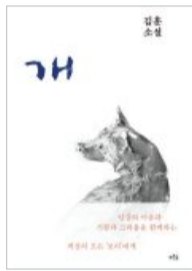


해피엔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허튼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로맨스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 개

김훈 지음

"인간과 세상의 직접적 관계, 그러니까 '생에 대한 직접성'을 설명하고 싶었다. 관능과 직관과 몸의 울동을 보여주면서 삶의 비애나 고통을 바로 들여다보는 존재를 상징하다 보니 개가 인간보다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200배나 되고, 청각도 더 발달했다. 그처럼 감각이 발달한 개의 내면에는 인간보다 풍요로운 삶의 정서와 인상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작가 김훈은 소설 '개'를 펴내면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가 개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다. 그렇다면 16년이 흐른 지금 '개'에 대한 단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훈이 '개'를 고쳐 출간한 작품은 이야기 뼈대는 유지하면서 내용은 상당 부분 손을 보았다.

소설의 주인공은 진돗개 '보리'다. 댄 김철로 수물을 앞두고 주인들이 떠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태어난 수컷 보리는 찢먹이 시절 엄마 품에서 따스하고 편안한 날을 보낸다. 하지만 "완벽한 평화 속에는 본래 슬픔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보리에게는 태어날 때 다쳐 쪼 먹기 경쟁에서 뒤쳐진 만형의 죽음이 겹쳐진다. 본능에 가까운 엄마의 행동으로 만형은 죽지만 보리의 눈에 그것은 한편으로 엄마의 따스하고 축축한 몸속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런 엄마의 행동을 오해한 노부부는 자식 잡아먹은 재수 없는 개라고 매타작을 해댔다. 그럼에도 노부부는 새끼 낳은 엄마에게 미역국을, 보리밥 잘 먹는 새끼들에게는 따뜻한 보리밥까지 받아 먹인다. 책 표지에 실린 '인간의 아픔과 기쁨과 그리움을 함께 하는 세상의 모든 '보리'에게'라는 글귀가 잔잔한 울림을 준다. <푸른숲·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인 법 해석을 비롯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선처도 있다. 그 뿐 아니다. 패소한 이유가 생각됐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도 있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을 기록한 책이 발견됐다.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처럼 책은 법정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문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제1회 흉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

저는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는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보았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사는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 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게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라고 평한다.

책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저자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정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그렇게 그는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블랙피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김현지 지음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어느 의사의 고백'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교수이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인 김현지가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암 병동, 응급실,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만난 환자들의 사연을 풀어낸 에세이가 출간됐다.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는 '죽음', '삶', '경계', '그 너머' 등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저자가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의 사연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서의 시선을 함께 엮었다.

저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2살 아기가 수술해줄 병원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다 세상을 떠나고, 힘겹게 살려놓았던 자살 시도 환자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숨진 채 병원에 실려 온 기억을 떠올린다. 또 어떤 환자는 손을 뜰도 없이 목숨을 내려놓았고, 또 다른 환자는 살 수 있음에도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한다.

"대신 살아줄 것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한 환자의 말을 듣고 의학이란 영역 너머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는 현대 의학의 발전만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병원 밖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아울러 그녀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면, 나는 기꺼이 '잘 죽이는 의사'가 되어 평안한 죽음을 돕고 싶다"고 말한다.

책에는 또 환자들의 '삶'도 담겨 있다. 그녀는 현대 의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사회적 차별 앞에 으스스한 건강과 생명에 대해 털어놓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든다. <다산북스·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